

5월 15일~18일 연등회 세계평화기원 무차대회

29일 '광화문 점등식'으로 막으른다

불기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행되는 연등회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서울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29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다. 광화문 광장을 밝힐 봉축등은 지난해 선보인 익산 미륵사지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한 장엄등.



익산 미륵사지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한 장엄등.

18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봉행되는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봉축행사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 기원대회는 △5월16일 현충원 참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5월17일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목무차대제, 전통 사찰순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0개국 종교지도자 300여 명을 비롯해 20만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운집해 평화와 통일을 발원하는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이 '공존, 상생, 합심'의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불교통일선언도 발표되며, 세계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화의를 통해 세계평화기원 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봉행위원장 지현스님은 "이번 연등회는 동국대를 출발해 종각에서 회향했던 지난 연등회와 달리 광화문광장까지 연결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광화(光化)는 무차(無遮)다

무차대회 열리는
광화문 광장은
나라와 불교의 길이
합치되는 공간...

"5월16일 이곳에서
누적된 폐습으로 인한
계층 간 불통과 대립
'무차와 광화' 정신으로
치유하고 쇄신하자

또한 세계 도처의
반목과 살상을 종식해
지구촌을 아름다운
정도로 변화시키자"
진제 중정예하

오는 5월16일 열리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기원대회)'의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다. 단순히 서울 도심 한복판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이어서 선택된 것만은 아니다. 알고 보면 나라의 길과 불교의 길이 합치되는 공간이다. 광화(光化)는 본래 무차(無遮)를 곱했으며 이제 다시 무차로 인해 새로워진다. 광화는 무차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 곧 정문이다. 조선의 임금은 광화문을 통해 백성을 바라보고 민심을 챙겼다. 그만큼 문에는 군왕에 걸맞은 권위와 덕망을 담아야 했다. 광화라는 이름은 세종대왕 휘하의 집현전 학사들이 <서경(書經)>의 구절에서 뽑아 지었다. '광피사표 화급만방(光被四表 化及萬方)'. '차별 없는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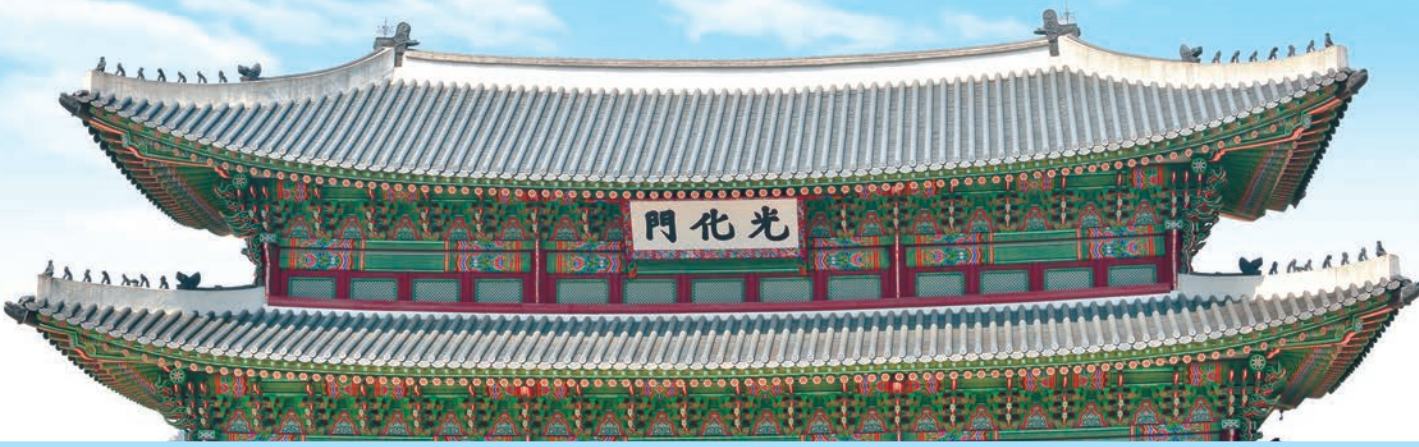
만방에 미친다'는 의미다. 곧 계급과 처지를 막론하고 누구나 부처임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광화의 주체였던 왕조는 사라졌으나 민중은 온존한다. 민주사회에서 광화문은 광장으로 거듭났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여기서 응원을 했고 시위를 했다. 다른 목소리들은 섞여서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더 큰 소음으로 파파파로 웃자랐다. 더구나 불협화음이 절정을 이루는 시절이다. 무차의 빛이 새삼 시급한 땅에서 이즈막 불교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한다. 기원대회를 제정한 진제 중정예하는 "누적된 폐습으로 인한 계층 간의 불통과 대립을 무차와 광화의 정신으로 치유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반목과 살상을 종식하고 지구촌을

아름다운 정도로 변화시키자"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10·11면

잘들 모르지만 금년은 승려도 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된 지 120주년을 맞는 해다. 조선시대 광화문은 스님들에게 금단의 문이었고 차별의 문이었다. 산골에서 간신히 연명하던 불교는 개화기의 바람을 타고 비로소 광장을 활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권(復權)은 남에 의한 복권이었고, 일제강점기 민족과 함께 서러웠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반세기가 한국불교 복원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월은 아프고 성난 중생을 보듬고 살피는 일로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원대회는 그간 쌓아올린 교단의 역량을 떨치는 동시에, 광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의 당부는 이에 조응한다.

장영성 기자 fuel@bulgyo.com



해인사, 5000만원 보시

아프리카 학교건립 동참

해인총림 해인사가 아름다운동행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마련에 정성을 보냈다. 해인사 주지 선해스님(사진)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는 데 크게



마음을 내 동참해준 만큼 뜻깊은 곳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2016년 학교 준공을 위해 지난 20일부터는 선서화 500여점을 기증받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한국 불교를 꽃피우기 위한 모금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을 만나 "고생이 많다"며 "힘내시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오체투지 및 단식을 벌여왔던 조계종 노동위 도철스님에게도 "세월호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봄날의 비는 살포시 내리는 그 모습이 나비의 날개를 닮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차밭에 나가 순이 올라오는 것을 살펴봅니다. 곡우를 지나며 차의 여러 잎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때 때 따는 차가 우전입니다. 여러 차가 모여 빚어내는 그 맛은 폭 익은 노스님의 마음의 여운과도 같고 숲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부드러운 손길의 여운과도 같습니다. 여운을 담은 그 맛은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맛이기도 합니다.

세우(細雨)가 빚어내는 세상이 아름다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산에 산다는 것은 작은 것들이 빚어내는 작은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라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산에 깃들어 사는 산승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산 중에 사는 스님은 닮았다고 합니다. 시인은 글로 자연을 노래하고 산승은 마음으로 자연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비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곧 내리기 시작한다/ 바람따라 물레 스며들어/ 소리 없이 축축이 만물을 적신다...(중략)...새벽녘 분홍빛 비에 젖은 곳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두보의 춘야희우(春夜喜雨)라는 시입니다. 분홍빛 비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빗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비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글도 익으면 도가 된다는 것을 나는 두보의 이 표현에서 봅니다.

봄날의 비는 무겁지 않아야 제맛입니다. 우산을 쓰지 않아도 비에 젖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예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람비에 옷 젖듯이 오는 비라야 연두 빛 숲을 차분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비가 피어내는 저 연두 빛 숲과 적옴의 소리는 마치 우전의 차 맛과도 같은 계절의 백미입니다.

차 잎을 뒤적이며 나는 차를 따라 오겠다면 사람들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아무래도 이 봄비 그치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함께 연두 빛 봄비가 피워낸 차 맛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남해 염불암

海印叢林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 대선사 추대법회

| 일 시 | 불기2559(2015)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법회내용 | 봉행사 - 추대사 - 축사 - 불자·법장 봉정 - 법어

•증명_법원 진제 대중사

불기2559(2015)년 4월

해인총림 방장추대준비위원회 위원장 : 선해, 향적, 원택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문의 : 방장 사서실(010-8591-6371) / 해인사 중무소(055-934-3000)

